

《연어》 100쇄 앞둔 안도현 시인

시인이란 밤하늘의 별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연어, 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책을 열면 만나는 첫 문장은 마치 막 장을 덮기 전 또다시 만난다. 모천회귀라는 존재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픈 사랑을 깊고 투명한 시인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연어》는 1996년 3월에 초판을 찍은 지 11년 만에 100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인이란 밤하늘의 별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안도현 시인은 지난 3월에 동시집 《나무 잎사귀 뒤쪽 마을》을 출간해 《연어》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다.

지난 3월 30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의 주최로 전남 순천에서 열린 어머니독서문화마당에 연사로 나온 안 시인을 만날 수 있었다. 휴대전화도 없는 그를 쉽게 만나기란 어려운 일임으로 조우의 기쁨은 몇 갑절

더했다. 3월 22일부터 나흘간 김주영 작가, 임철우 작가와 함께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관에서 작품 낭독회를 하고 돌아온 안 시인은 여독이 완연히 가지지 않은 모습이였다.

《연어》 표지에는 ‘어른을 위한 동화’ 라는 문구가 있다. 본래 동화는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라는 뜻인데, ‘어른을 위한,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는 모순된 표현이다. 안 시인은 “이 책을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 바치는 점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양해를 구한다” 라고 써있는 《어린왕자》 서문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국어교사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화나 동시와도 작별하는, 독서의 단절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린왕자》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갈매기 조나단》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동화와 소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에 천착했다. 《연어》는 이런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연어》를 쓰기 위해 연어와 관련된 논문, 단행본, 사진집 등 각종 문헌자료를 모두 구해서 읽었고, 물고기가 등장하는 영화와 비디오까지 수십 번 봤을 정도이다. 자료조사와 준비기간 2년을 거치고 200자 원고지 약 300매 분량을 쓰는데 6개월 걸렸다.

안 시인은 《연어》를 출간한 이후 《관계》 《짜장면》 등을 차례로 내놓았다.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관계 회복하기’ 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도 물론이다. “나” 라는 존재는 나 아닌 것들이 만들지요. 나무도 혼자서 나무일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 땅, 물, 바람, 나무에서 살아가는 벌레까지 존재해야 하죠.”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지는 향후에도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안 시인은 스스로를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그렇기에 한 달에 천편의 시를 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석대 문예창작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는 시를 고치는 과정을 “바느질한다”라고 표현했다. 바느질 표시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한 편의 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백 잔의 술을 마시고, 적어도 다른 시인의 시 백 편을 읽어야겠죠.”